

LED산업에 '광주예술' 입힌다

광업체 10개사-지역 중견작가 10인 컨소시엄 경관조명 등 '광아트 세계화'로 틈새시장 공략

'LED에 예술을 입힌다' 광산업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광아트'(Light+Art)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불을 밝혔다. 광주 전략산업인 LED산업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틈새 시장을 발굴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출하자는 취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LED 미니클러스터는 8일 "첨단 기술인 광산업과 예술간의 창의적 접목을 위한 '광아트'(Light+Art) 프로젝트를 위해 1사(社) 1작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첫 모임을 연 데 이어 10일 워크숍을 갖고 광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LED 조명과 예술의 창조적 결합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 작업을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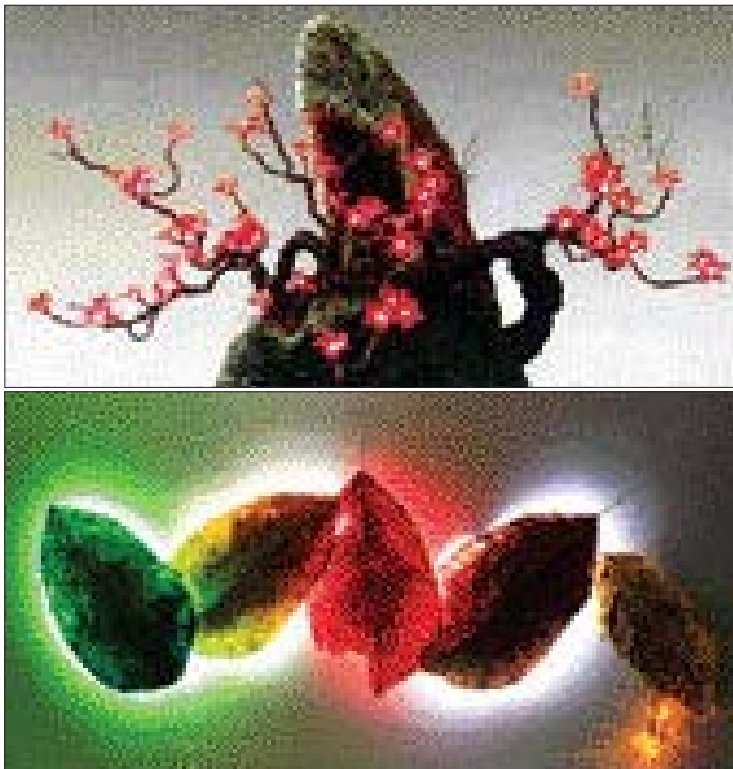
'광주의 빛(光) 세계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1개의 광산업체와 1명의 작가가 협력,

문화예술이 융합한 신개념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차별화된 지역 LED산업의 기술력과 문화 예술 컨텐츠를 동반 육성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광산업체가 다양한 문자 및 그래픽 등을 표현할 수 있는 LED 제품을 제공하면 작가들은 미술의 기본적 재료인 붓이나 물감, 캔버스 대신 LED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식이다.

정선휘, 정은화, 김숙민, 위재환, 윤익, 이기성, 신호윤, 김진화, 김솔, 진시영 작가 등 조각·회화·설치 부문과 영상·뉴미디어 부문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손을 잡은 기업들은 라이텍코리아를 비롯해, 신유, 광주인탑스, 이노셀코리아, 세오전자, 이상테크, 케이오, 코세미, 나노팩, 에포크산업 등 광주의 내로라하는 LED 업체들이다.

라이텍코리아㈜ 심상인 대표이사는 "광주 중심 LED 업체들의 기술력과 지역 작가들의 창조성을 융



회화·설치 부문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선휘 작가가 라이텍코리아의 차임LED제품 등을 활용해 만든 꽃<위>과 낙엽. 차임 LED는 장식전구의 단점인 저효율 및 단수명을 개선한 제품으로 공간 연출 효과가 뛰어나다. <라이텍코리아 제공>

합한 신개념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 국내 LED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쏘울, 美 올해의 인테리어상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아차 쏘울이 미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미디어 워드오트(Ward's auto)가 선정한 '올해의 인테리어'상을 받았다.

기아차는 8일 워드오트가 최근 두 달 동안 신차 또는 인테리어가 개선된 35개 차량에 대해 디자인, 소재, 마무리, 인체공학, 안전성, 안락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쏘울이 '올해의 인테리어'상의 11개 분야 가운데 '가장 멋진 인테리어'(Grooviest Interior) 부문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쏘울은 '젊은층에게 안락함, 품질, 즐거움의 이상적 조합을 제공하는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멋진 인테리어 디자인과 실용적 실내공간, 라임팅 시트, 라임팅 스피커 등 개성 있는 신사양이 주목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달라진 부가세 신고 체크하세요

부동산 임대 보증금 이자율 5% → 3.4%로
광주국세청 신고대상자 27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 세부 기준이 바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8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4만4천명, 개인사업자 5만명 등 총 9만4천명이다. 이는

지난해 신고대상사업자 8만8천명에 비해 6천명이 증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적용 고시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일반 업종 1%서 1.3%, 음식·숙박업종 등 간이과세자는 2%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서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6/106에서 8/108로 인상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는 음식점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 가격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추가된다. 이외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극적인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실실신고 등의 법인(828개)에 대해서는 중점 신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온난화로 연평균 기온 1도 ↑ 전남 농지 1ha당 1,900만원 ↓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지구 온난화로 연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1ha당 농지 가격은 최대 1천 900만원가량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8일 '기후 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06년 기온이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1도 이하일 때는 1도 상승할 때마다 10a당 쌀 생산량이 평균 24.4kg 증가했지만 20도 이상일 때는 오히려 6.2kg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후와 작물의 생육 간 상관성을 정립한 '기후-작물생육 모형'을 이용해 쌀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평년(1971~2000년)보다 기온이 2도 올라가면 10a당 생산량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남·전북이 5.9~6.9%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충남·북이 2.4~2.7% 감소해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적었다. 5도 올라갈 경우 평년 대비 생산량이 14.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 변화로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1ha당 농지 가격은 약 1천455만~1천924만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지에서 나오는 농업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최고 기능인 뽑는다

광주 기능대회 개막

광주 지역 최고 기능인 선수를 위한 '2009광주시 지방 기능경기 대회'가 8일 개막됐다.

광주공업고등학교 체육관 등지에서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CNC선반 등 46개 직종 545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리며, 입상 선수들은 오는 9일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제 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동 1062-227-9940
충장점: (구 남대동) 1062-227-9970

배터리 재생의 신기술

문의전화: 전국 시군구 배리협모임 031-021-6860(대)

포서빌 공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개포동 944-1번지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60% 신청필수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만큼 100만원 보증사한(www.1000)은

월 사용량에 450kWh에
주택용 설비보급에
설치 권 100,000원 /월
설치 후 19,070원/월
평균 80% 이상
전기요금을 절감!

T. 080-7272-7000